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 실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공시제도의 제·개정사항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이 공정거래담당 임원 및 간부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5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실시되었다.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http://www.kfta.org))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교육에서 공정위 조사과 윤주선 사무관은 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의 이사회 의결 절차와 방법, 공시시기 및 절차, 주요내용 등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의무와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의결정공시에관한규정」, 유권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고,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 기업의 내부거래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담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의 주요내용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협회 준법지원실 홍미경 실장은 정부의 CP 정책방향과 중요성, 도입기업의 인센티브, CP 이행평가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의 간부급에서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이해시켜 경쟁정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협회에서는 오는 7월경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과 하도급법에 관한 정부위탁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유통관련 분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1박 2일간 개최

**한국** 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는 유통관련 기업의 실무책임자 33명을 대상으로 제4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을 지난 6월 19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유통업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

후 운영방향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표시광고의 공정화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법규해설과 실무사례 중심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협회는 그 동안 실시되었던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에서 연수생들이 분야별 전문연수과정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 유통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날 연수과정에서 공정위 정재찬 경쟁국장은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자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7월초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주 유통거래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하였으며, 직매입거래에 대한 연수생들의 질의에 대



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개정시 직매입거래에 관한 사항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임은규 표시광고과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표시·광고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TV홈쇼핑 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전문기관의 추천·권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2003년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마지막 과정에서 이성구 소비자기획과장은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의 법 제정 및 개정 취지와 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 연수과정에 참석한 연수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유통업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제도의 심층분석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분야별 연수과정이 확산되어 정책담당자와 기업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회는 차기 분야별 전문연수과정으로 “금융·보험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